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연기

재무건전성 준비금 신설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 연기에 맞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의 적립 기준 강화 역시 1년간 미뤄짐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LAT에 따른 보험사의 과도한 당기손실 확대를 막고, IFRS17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 하려면 계획을 1년씩 늦추기로 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급증해 보험사의 당기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LAT란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보험 부채)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LAT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이 늘어 당기 비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도 늘게 된다.

손 부위원장은 "LAT 적립 기준 강화 연기로 금리 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AT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빠지고 내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 확충에 기여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국제 무역사기, 4년간 피해액만 255억

정확한 피해 산출하려면 소송 끝나야

국제 무역 사기가 최근 4년간 3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만 255억원으로 추정된다.

1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무역 사기는 총 139건, 피해액은 87억원이다.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건, 피해액 80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82건의 무역 사기가 있었고, 피해액은 89억원이다.

지역별로 ▲유럽 85건 ▲동남아시아 71건 ▲아프리카 48건 ▲중국 52건 순

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3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이메일 해킹 99건(28%) ▲서류 위조 55건(15%) ▲금품 갈취 43건(12%) ▲결제 사기 41건(11%) ▲선적불량 40건(11%) ▲불법 채류 17건(5%) 등으로 이어졌다.

무역 사기 피해 금액 규모는 소송이 끝난 후 확인 가능하다. 당국이 파악하는 피해 금액은 기업이 제시하는 주관적 피해 금액으로, 객관적 금액 파악은 한계가 있다. 결국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출하려면 소송이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석대성 기자 bigstar@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60% 늘려

일부 대기업·재산가 표적조사 지적

국세청이 지난해 거액 재산 취득자의 자금 출처 조사를 전년 대비 60%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일상화한 변칙 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재산가 표적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박병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는 총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시행하는 조

사다. 세금 추징이 목적이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감세소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갑자기 2000건대로 급격히 뿔 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 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 조사를 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하지만 서면 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3월 폐지했다. /석대성 기자

카타르, LNG선 100척 연내 발주 연합체구성 등 조선업계 수주총력

카타르페트롤리엄 80억 달러 규모 SK해운 등 5곳 연합체 13일 설명회 조선 3사 수주 목표 달성 '한 발짝'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타르에서 날아온 대규모 발주 소식에 국내 해운선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운송계약을 따내기 위해 공동 협력에 나서고 있다.

1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연내 LNG운반선 40척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발주 규모만 80억 달러에 달하며, 옵션물량과 노후선박 교체물량까지 포함하면 100척에 달하는 발주가 쏟아질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선박건조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소가 유력하다. LNG운반선을 이용해 카타르 LNG 수송을 맡을 선사가 이번 프로젝트의 관건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벌크선사인 대한해운, 팬오션, SK해운, 현대LNG해운, 에이치라인해운 등 5곳은 연합체를 구성해 오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LNG 운송계약 수주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등도 참석



현대중공업 LNG 운반선.

한다.

카타르에서 발주한 선박을 국내 조선업계가 건조하게 되면 올해 수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 조선 3사는 부진한 수주 실적으로 목표치 달성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현대중공업은 수주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31억9900만달러의 일감을 수주하고에 올리며 올해 목표인 117억3700만달러의 27.3%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최근 싱가포르선사인 이스턴퍼시픽으로부터 1만 5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의 건조 일감을 확보했다. 또한 그리스 캐피탈마리타임과 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운반선 14척 건조를 추진

하며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는 83억7000만달러 중 약 35.4%인 2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목표치에 가장 근접한 삼성중공업은 최근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세계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9억2000만 달러다. 삼성중공업은 또 말레이시아 선사인 MIS C로부터 17만4000㎡급 LNG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1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들 선박은 미국 오일 메이저 엑슨모빌이 생산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운송할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총 54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78억 달러의 69%를 달성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공유경제 만난 문학콘텐츠'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공유경제 국제포럼에서 방문객들이 2019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선정기업 브이에스커뮤니티의 '복셀빙'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무역보험공, 기업 지원 실적 5년간 2.5兆 ↓

중견 93%·중소 63% 지원 감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2조 572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3.4%나 줄어든 것이다.

10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출신용보증(선적후·네고) 지원 실적은 중견기업은 2014년 1조1967억원에서 지난해 820억원까지 줄었다. 93.1%나 감소한 수치다. 중소기업도 같은 기간 2조3053억원에서 8475억원까지 줄었다. 63.2%나 떨어졌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발생한 수출채권을 수출대금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융기관이 선적서류 등 환여움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수출신용보증(선적후)·수출신용보증(네고·Nego)·단기수출보험 세 가지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경우가 이 기간 4220건에서 103건으로 감소했다. -97.6%다. 중소기업은 2만320건에서 9234건으로 -54.6%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무역보증공사의 수출채권유동화 보증상품 지원 실적이 감소한 요인은 모뉴엘 소송 분쟁에 기인한 금융기관의 무보증서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심사기준 강화도 실적 악화 요인이다. 지난해 7월 모뉴엘 사기 사건 이후 무보는 보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리스크(위험도) 관리를 강화했다. 은행과 무보가 모뉴엘 사건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소극적 자세로 보증상품을 활용해 실적이 줄고, 건실한 수출 중견·중소기업도 피해를 봤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석대성 기자